

<2022년 7월 17일 주일말씀>

하나님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행하신다

[시대 성경]

하나님의 역사이니, 하나님과 성령님은 반드시 그가 택하신 자들과 함께 행하신다.

그러므로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하여라.

그리하면 정녕코 너와 같이 이루시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1장 7-8절]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전도서 4장 9-12절]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 <영상>을 보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영상1>

- 성경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 하시고,
인류가 서서히 발전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하여 ‘구원역사’를 펴셨습니다.

- <구원역사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때’ 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때를 따라 ‘중심인물, 사사, 선지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역사’를 펴셨습니다. (구약)

이후, 때를 따라 ‘메시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역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역사’를 펴셨습니다. (신약)

-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원역사>가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역사’입니다. <끝>

- <구원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역사>는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뤄야 ‘자기가 태어난 목적’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목적’도 이룹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구원’을 이루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이룹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을 벗어나서 살게 됩니다.

그때 ‘죄’를 짓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며 구원하십니다.

- 구원을 받으면, 그 표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 대로 목적을 이루고,
<신약시대>에는 ‘신약’ 대로 목적을 이루고,
<이 시대>는 ‘이 시대’ 대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뜻도 목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역사이니, 반드시 ‘택한 자들’ 과 함께 행하신다.
너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하여라.
그러면 정녕코 너희와 같이 역사를 이루리라. - 했습니다.

- ▶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영상2>

- <신약시대 최고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구약 이후 시작된 <신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하셨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뜻이 후대까지 펼쳐져 나가 역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끝>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도 <사람이 태어난 목적>도
<구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이 뜻과 목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택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품고 지키고 행할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목적을 품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창조목적>도 이루고 <사람이 태어난 목적>도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과 ‘자신의 소원’도 이룹니다.

<중요 부분>

-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 반드시 끝까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상’ 을 주시고

<성령님>은 ‘감동 감화’ 를 일으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며,

때로는 그때에 ‘합당한 사람’ 을 쓰고 말하고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 하나님도 성령님도 때마다 함께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을 쓰고 <합당한 사람>을 쓰고 행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도 오고, 용기도 생기고, 희망이 솟아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행하게 됩니다.

매일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순간에도 일어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게 되고,

- 항상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행하며 살게 되고,

- 그러므로 매일 ‘구원의 삶’ ,

곧 ‘뜻을 이루는 삶’ 을 살게 됩니다.

- <과거>도 중요하고, <과거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금!! 우리와, 너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지금’ 이
그렇게도 중합니다.

- ▶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말씀할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상3> - 중요

- <하나님>은 ‘성령’ 과 일체 되어
능력을 주고, 감동을 주며, 상황과 여건도 틀어 주고,
생각나게 하고, 보호하고, 힘을 주시며 행하십니다.

또한 <성자>도 늘 함께하시고,
<예수님>도 함께하시고,
<천사들>도 시중을 들며 함께 행합니다.

- 이렇거나 함께해 주는데,
자기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자기 혼자 한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지극히 육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 그러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것도 힘들고,

-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 생각도 행실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자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합당한 자>에게 사명을 주어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이렇게 늘 함께하십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 흔히 성령님이 행하신 후에야 알게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행하실 때> 눈치채고 알면
 더 감동이 되고, 더 힘이 오고, 용기가 생기고,
 성령님도 더욱 역사하시니 더 확실하게 행하게 됩니다. <끝>

<잠시 쉬었다가>

-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됩니다.
- 우리는 <이 세상 육의 삶>을 살면서도,
 -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 <사람이 태어난 근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혼자서는, 우리끼리는, 육의 지식과 힘만으로는
 약해서 못 합니다.

▶ 이어서 <두 번째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영상>을 보면서 해 주겠습니다. <영상4>

- 자기 혼자서 하면 ‘한 겹줄’ 입니다. 그러니 약해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와 함께하고,
<부리는 영 = 천사>와 함께하면,
<자기>까지 ‘7겹줄’ 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습니까? 강하니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탄>도 <악의 세계>도 끊지 못합니다.

<영상 전환 : 잠시 쉬었다가>

-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해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세 겹줄’ 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세 겹줄은 강하니,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
‘세 겹줄’ 이 되어 끊어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영상 전환 : 잠시 쉬었다가>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세 겹줄’입니다.

그래서 ‘각 위’로 존재하시지만,
항상 ‘하나 되어’ 행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권세가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 하나님의 역사 - <구약, 신약, 성약>도 ‘세 겹줄’입니다.

<구약>의 터전 위에 ‘신약’이 세워지고,
<신약>의 터전 위에 ‘성약’이 세워지니,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 교회에서도 <삼위>와 <사명자>를 중심으로
<교역자>와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세 겹줄’로 일체 되어 행해야 제대로 잘되고 형통합니다.
- 그러니 홀로 외롭다고 하지 말고 힘이 없다 하지 말고,
겹줄이 되어 행하기 바랍니다.

<영상 전환 : 잠시 쉬었다가>

- <말씀>과 <기도>와 <찬양>도 ‘세 겹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강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삼위의 역사를 행하기’입니다. <끝>

<잠시 쉬었다가>

-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면,
<증거자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여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행하시고,
<성령님>은 감동 감화시키면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며 행하십니다.

-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손발이 맞아야 일이 잘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마음이 맞아야 잘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해야 잘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기 마음’에 맞춰서 하자고 하면,
각자 개성의 마음이 있기에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서 하자고 하면,
싫다고 하지 않고 모두 좋아하고 기뻐하며 행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일체 되어 행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므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잘됩니다.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5>

-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되고 형통하리라.”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모두 잘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신 이유>는
그들이 ‘먼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했기 때문입니다.

-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내가 함께하니,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하여라.

그러면 <전능자 삼위일체>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정된 대로 정녕코 행해 주겠다.” <끝>

- 항상, 매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생각하고 살면,
<성령님>이 ‘자기 몸’을 쓰고 절대 행하시며,
능력으로 돕고 함께해 주십니다.
- 성령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며 도우십니다.
그렇게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항상 옆에 계시며 돕는다고 말해 줘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날이 많습니다.

생각에서 잊지 않기 위해 삶 속에서 늘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로 찾고 대화할수록 더욱 느껴지는 성령님이십니다.

- 어느 날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네 옆에 있어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부르며 기도하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 <성령님>은 항상 늘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믿어야 하고, 불러야 하고,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도 옆에 있는데 부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감이 떨어져서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그러하니,
매 순간 잊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부르고 말하면서
늘 함께 살고 함께 행하며 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 <그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일체 되어 행해 주시니,
이것을 절대 믿고 힘차게! 희망차게!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